나를 깊이 간직하신 하나님

(민10:1~10)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3.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4.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5.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7.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8.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
9.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나를 깊이 간직하신 하나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나를 깊이 간직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와 ‘나를 깊이 간직하신 하나님!’이라고 형용어구를 붙여서 부를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속담에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으라’는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누울 자리를 봐가며 발을 뻗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 앞에서 발을 뻗지 않고, 차 안에서 앞좌석에 앉아서 자리가 좁은데 발을 뻗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 관계에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 이성에게 구애(求愛)를 시작하는 단계와 구애가 성공해서 애인이 되었을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애를 하는 초

기 단계에는 누울 자리를 보면서 아무 음식이나 먹자고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내하고는 4,000원짜리 백반집을 가거나 3,000원짜리 칼국수집을 가는데, 강릉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모시고는 3,000원짜리 칼국수집을 갈 수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것입니다. 그럴 만하니 3,000원짜리 칼국수집에 가는 것이고, 그럴 수 없으니 다른 더 좋은 음식점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칼국수집 중에서 3,000원짜리 칼국수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실 수가 없고 맛이 없어도 더 비싼 음식점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누울 자리를 보고서 다리를 뻗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나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그 때에도 누울 자리를 보고서 다리를 뻗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말과 행동과 기도와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봅니다. 그냥 과장되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나를 간직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이 부르며 찾을 때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맥락에서 유월절에 근거를 둔 선민들이 드디어 행군을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며 행군을 함으로 장소가 이동이 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린 양 피 안 쪽에 있는 사람들임을 알려주십니다. 구름의 임재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보내는 것이 첫 번째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지 어린 양 피 안쪽이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자들이고 이미 목적을 이룬 자들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최종적이고 근본적인 기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구름이 떠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막에서 손바닥만 한 구름이 성막 위에만 임했다는 뜻이 아니라 40~50도 태양이 작열하는데 해를 가린다는 뜻입니다. 영화 "전투"에서 보면 지프차에 달걀 프라이를 해서 먹습니다. 사막에서 구름 바깥으로 나가면 햇볕에 타 죽습니다. 그 '구름 안쪽에 있다'는 것은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이고 그 피 바깥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겪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오늘은 "나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름을 보면서 어린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나팔 소리가 이야기됩니다.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불라고 하시는데, 이 나팔소리에 따라서 250만 이스라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나팔소리는 약속을 담고 있는 소리입니다. 나팔을 두 개 불면

회중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하나만 불면 각 지파의 족장대표들만 모이게 되고, 나팔을 높이 끊어서(뿌, 뿌, 뿌, 뿌) 불면 유다지파가 속한 진영의 제1대가 진을 갖추게 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사불란'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마치 나팔소리가 하나의 줄이고 바구니 안의 구슬을 꿰어서 한 줄에 엮는 것처럼, 나팔소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50만 이스라엘 백성의 귀로 들어가면서 한 줄(一絲)로 다 꿰어지는데,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들리면 다른 모든 소리에 대해서 귀를 닫고 나팔소리만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소리 하나에만 집중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와 많은 이야기와 많은 말들이 들립니까? 그러나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는 방식에서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민이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일 때에 부딪힘과 충돌과 갈등이 없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복음(福音)'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음(音)'이 '소리'로 '기쁜 나팔 소리'입니다. 다른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나팔 소리에는 '너는 죽었다. 너는 지금 듣고 있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해 죽었다'라는 소리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250만 명의 공동체가 나팔소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약속이 있습니다. 3~8절까지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니라"라고 약속을 담고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니 9절과 10절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8절까지는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약속을 담은 나팔소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9~10절에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고 하시는 것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분다는 것이므로 선민이 아닌 다른 족속도 나팔을 불거나 북을 치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의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

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라는 말씀이 이상합니다. 10절에서도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시는데 전쟁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희락의 날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나팔소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선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만, 선민들을 잊고 계시다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깜짝 놀라셔서 살펴보시겠다는 소리이겠습니까?
욥7:17~19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말이지만 이 속에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선민 250만 명을 깜빡 잊고 계시다가, 전쟁을 할 상황에서 나팔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내려오시겠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있든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문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고 이 단어의 뜻을 풀이하면 '마음 속 깊이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면 너희를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민을 마음 속 깊이 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혹은 패배할까 두려워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버리면 어린 양 피의 안쪽에 머물고 있던 마음들이 어린 양 피 바깥쪽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를 마음에 그릴 때에도 어린 양 피 바깥으로 나가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 속 깊이 간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는 '250만 명 선민들아!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너희는 전쟁터와 적군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마음 속 깊이 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뒤집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려면 내 눈 앞에 적군이 나를 향해 창을 겨누고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한 사울 왕은 자신이 골리앗 앞에 있는 줄로 알았으나 다윗은 삼상17: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과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육체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붑니다. 이 말은 위급 시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어린 양 피 바깥의 인간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해서는 안 되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나는 죽으라는 것인데 이게 번제이고, 화목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내가 죽는 것이고, 화목제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번제와 화목제가 나팔소리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린 양 피 안쪽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기뻐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이 안 되어서 돈 문제에 부딪쳤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문제에 마음이 뺏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알고 부르지만 지금 전쟁 같이 해결해야 될 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바깥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붙는 하나님이 나를 깊이 간직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부른다면, 돈 문제가 있어도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단 하나의 기도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이 상황을 전지하신 능력으로 알고 계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분이 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신다면 무슨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랑, 그 전지, 그 전능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는 단 하나의 말 밖에는 나올 수 없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슨 '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것들은 다 구애의 첫 단계에서 할 일이지, 이미 애인이 되어서 내가 상대방 이성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믿어지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유월절에 근거된 어린 양 피 안쪽에 머무는 선민입니까? 그렇다면 선민의 표식이 구름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 피 안쪽에 머무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양 피 안쪽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나팔소리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나팔소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므로 오늘 분문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팔소리가 들리면 내가 지금 적군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시겠다는 것인데 이 세상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당황스럽고 난리가 날 때에, 차분하게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졌다고 믿어지면, 환경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문제처럼 보이던 환경이 일점일획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절로 감사가 용솟음치게 됩니다. 바뀐 것은 당황스런 상황을 마주대했을 때는 내가 그 상황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느끼자마자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적군들을 쳐서 없애겠다고 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어지고, 이제 과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문제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이 꼭 전쟁에서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걱정하는 모든 장애와 방해와 문제들이 다 대적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고, 나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아무문제도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계속 부른다면 일반 종교에서 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나는 문제에 마음이 매여 있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에는 힘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이러한 찾음은 끊임없이 나의 위치를 하나님 밖에 설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어린 양 피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피의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내가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면 얼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와서 피 안쪽에 마음을 두면,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다는 확신으로 그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전지하신 분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 깊이 간직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종교의 신을 찾는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부자관계요, 부부관계가 되는데 나팔소리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지면 포로로 잡혀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음이 느껴지면 그 다음부터 전부 하나님의 능력과 원하시는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왜 이런 삶을 포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마음속 깊이 간직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됩니까? 어린 양이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의 경계선입니다. 어느 상황이 주어져도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이 상황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피 안쪽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소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나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는 계속 울려 퍼지지만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선민의 믿음은 자식의 소리, 아내의 소리, 경제의 소리, 다른 모든 소리 중에서 십자가의 소리만을 듣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 마음 속 깊이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억되면 봄바람에 눈 녹듯이 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백 가지, 만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소리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 마음 속 깊이 간직된 나를, 그리고 나를 품으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자리에서 복지를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